

레바논의 Hariri 총리, 사임 하루만에 복귀

- 레바논의 Rafik Hariri 총리가 사임 하루만에 총리직에 복귀하였음.
- Emile Lahoud 레바논 대통령은 Hariri 총리를 압도적으로 재신임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Hariri 총리에게 신정부 조각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16일 발표하였음.
 - o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Lahoud 대통령이 Hariri 총리에게 새 내각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맡아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음.
- Hariri 총리는 총 30명의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과도 내각을 이끌게 되며, 이후 차기 총리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정적임. Hariri 총리는 Lahoud 대통령으로부터 조각권을 위임받은 뒤 17일부터 의회와 새 내각 구성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앞서 Lahoud 대통령과 128명의 의원들은 장시간 총리 지명 문제를 협의했으며, 93명의 의원들이 Hariri 총리의 재신임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리 사임은 시리아의 압력에 의한 “연출된 헤프닝”

- Hariri 총리는 지난 15일 Lahoud 대통령을 방문해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직서는 즉시 수리되었음. 그의 사임은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어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을 낳았음.

- 반면, 정치 분석가들은 Hariri 총리의 사의 표명이 처음부터 시리아의 압력에 의한 각본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하며, 몇몇 장관들을 교체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선에서 親시리아계 정부가 재출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o 이라크 이후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로 떠오른 시리아가 미국과의 긴장 상황에 집중하려면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후방이 안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의 내각을 보다 親시리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총리의 사임 및 재신임을 연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차기 정부 구성은 Lahoud 대통령과 Hariri 총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두 지도자간의 불화와 이견으로 기존 내각은 장기간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과연 조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임.
- 레바논은 그 동안 경제개혁과 국내정치 문제 등으로 기존 내각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후견국인 시리아마저 등을 돌렸으며,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개각이 예상되었지만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연기되어 왔음.

□ 미국의 對시리아 위협이 레바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 對중동정책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親이란계 게릴라 단체 헤즈볼라 (“神의 黨”)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o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거점이며, 헤즈볼라 게릴라들은 지난 2000년 이스라엘이 22년간 점령해온 남부 레바논에서 철군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단순한 게릴라 단체가 아닌 정당으로, 레바논 의회에도 진출해 있음. 따라서 미국의 對시리아 위협은 레바논에도 즉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분석가들은 새 내각이 시리아의 레바논 장악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세력도 거국적 차원에서 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야당의 내각 진출은 극히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며, 전반적으로 강력한 親시리아계 정부가 재출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 시리아는 1975~90년의 레바논 내전 기간에 이슬람계와 좌파 및 팔레스타인계의 공세에 밀리던 기독교 민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였음. 이후 기독교 민병대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나, 시리아는 여전히 레바논의 정치·군사적 후견국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오경일 (☎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